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35 주차 (롬 14:1~14:14)

(2016년 4월 29일 - 2018년 5월 5일)

(제5권 35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35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8 년 4 월 29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인가? (주일)

오늘의 본문 (롬 14:1~4)

- ¹ Τὸν δὲ ἀσθενοῦντα τῇ πίστει προσλαμβάνεσθε,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
μη εἰς διακρίσεις διαλογισμῶν. ([그들의] 판단하는 바를 다툼으로까지 이끌지 말라)
- ² ὃς μὲν πιστεύει φαγεῖν πάντα, (사실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는다)
ὁ δὲ ἀσθενῶν λάχανα ἐσθίει.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채소를 먹는다)
- ³ ὁ ἐσθίων τὸν μὴ ἐσθίοντα μὴ ἐξουθενείτω, (먹는 자들이 먹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ὁ δὲ μὴ ἐσθίων τὸν ἐσθίοντα μὴ κρινέτω, (그리고 먹지 않는 자들이 먹는 자들을 비판하지 않도록 하라)
ὁ θεὸς γὰρ αὐτὸν προσελάβετο.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 ⁴ οὐ τίς εἶ ὁ κρίνων ἀλλότριον οἰκέτην;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일하는 집사를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냐?)
τῷ ἰδίῳ κυρίῳ στήκει ἢ πίπτει; (그가 서고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있다)
σταθήσεται δέ, (그가 서게 될 것이다)
δυνατεῖ γὰρ ὁ κύριος στηῖραι αὐτόν. (왜냐하면 주께서 그를 능히 세우시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다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한다. 서로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여겨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정도가 빈번하고 심할수록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진다. 그런데 공동체 내에서 서로 다름이 있는 이유는 사람마다 각자 살아온 배경, 세계관, 관습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만 옳고 남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성장면서 형성되어 온 습관이나 세계관은 쉽게 바뀔 수 없다. 내가 바뀌기 어려운 것은 남도 바뀌기 어렵다.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은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피차 마찬가지다.

바울은 14 장부터 로마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갈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14 장은 12 장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한 문제다. 그렇기에 12 장 1 절과 2 절의 명령을 전제로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 로마서 12 장에서 바울은 이미 이웃 사랑에 관해 이야기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성도들에게 가르친 핵심 내용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한 셈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한 것도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런 저런 것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참으로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신앙 생활이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삶의 모든 양상들이 달라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국인들은 누구나 김치를 먹고 산다.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먹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전에 프로 골퍼 최경주가 마스크즈의 전통에 따라 그해 우승자가 과거 우승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례가 있는데 만약 자신이 우승하면 오케스타에서 청국장을 끓여 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물론 웃자고 한 이야기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오만상을 쓰고 연신 코를 부여잡으며 도망갈 미국 선수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웃기도 했다. 많은 한국인들이 청국장을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청국장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한다. 청국장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 음식인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

은 먹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승자가 대접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결례를 저질렀다고 그들을 비판할 수도 없다. 평생을 통해 길들여진 음식에 대한 기호를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청국장은 그렇다고 치자. 그럼 돼지고기는 어떤가? 성경은 돼지가 굶이 갈라져 있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하고 있다 (레 11:7-8 참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 돼지고기는 입에도 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돼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으레 부정한 뜻으로 이해했다. 유대인들 외에 회교도들에게도 돼지고기는 금기시 되는 음식이다. 코란이 성경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1917년 인도 비하르 주에서 힌두교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 폭동으로 30 여명이 죽고 170 개의 회교도 마을이 문지방까지 뿔뿔이 난리가 났다. 이는 돼지고기를 싫어하고 소고기만 먹는 회교도들에 대해 힌두교인들이 일으킨 폭동 때문이었다.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인들에게 회교도들의 행위는 중오의 대상이었다. 당시 인도의 성자로 추앙받던 마하트마 간디도 폭동 그 자체에는 반대했지만 암소 숭배는 옹호했다. 그리고 인도 모든 지역에서 전면적인 암소 도살 금지법이 시행되기를 바랐다. 그 후에 실제로 인도는 암소를 살해하는 어떤 행위도 금한다는 암소 권리 헌장을 헌법에 포함시켰다 (마빈헤리스 저(박종렬 역) 문화의 수수께끼 (한길사 2017)p40 을 참고하였음).

종교적인 이유로 암소 살해를 금한 인도인들은 회교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돼지고기는 마음대로 먹었다. 회교도들의 먹거리는 힌두교도들에게는 죄로 규정되었고 회교도들이 죄라고 여기는 것은 힌두교도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 두 종교간의 분쟁은 불 보듯 뻔했다. 서로 다른 종교적 계율을 가진 두 집단은 결국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로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종교 문제로 나라가 쪼개지는 일까지 일어난 것이다. 참고로 파키스탄이라는 말은 ‘깨끗한 나라’라는 뜻이다. 아미도 부정한 돼지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 아닐까? 이처럼 먹거리 문제는 초대 교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성경에 따라 정결한 것과 부정할 것을 엄격히 구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결한 것만 먹고 살던 유대인들의 눈에 부정할 것을 거리낌없이 먹는 이방인들은 부정할 자들이었다. 반대로 이방인들 눈엔 아직도 먹거리를 문제 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편협하게만 보였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율법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을 뿐 아니라 율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된 자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런 비판은 비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교를 벗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유대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고 여전히 옛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들을 향해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로 몰아가며 믿음이 없다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모양이다.

도대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 누가 옳은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생각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는 이를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 보았다. 이방인들을 먹거리 문제로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같은 문제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엄격한 율법주의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들이 전통적인 구습을 버려야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에 어느 정도는 서로 이해해 주라고 강조한다.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이다. 모든 다름이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특징을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무거운 짐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 14:1~4)

- ¹ Τὸν δὲ ἀσθενοῦντα τῇ πίστει προσλαμβάνεσθε,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
μὴ εἰς διακρίσεις διαλογισμῶν. ([그들의] 판단하는 바를 다툼으로까지 이끌지 말라)
- ² ὃς μὲν πιστεύει φαγεῖν πάντα, (사실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는다)
ὁ δὲ ἀσθενῶν λάχνα ἐσθίει.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채소를 먹는다)
- ³ ὁ ἐσθίων τὸν μὴ ἐσθίοντα μὴ ἐξουθενείτω, (먹는 자들이 먹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ὁ δὲ μὴ ἐσθίων τὸν ἐσθίοντα μὴ κρινέτω, (그리고 먹지 않는 자들이 먹는 자들을 비판하지 않도록 하라)
ὁ θεὸς γὰρ αὐτὸν προσελάβετο.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 ⁴ οὐ τίς εἶ ὁ κρίνων ἄλλότριον οἰκέτην;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일하는 집사를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냐?)
τῷ ἰδίῳ κυρίῳ στήκει ἡ πίστις; (그가 서고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있다)
σταθήσεται δέ, (그가 서게 될 것이다)
δυνατεῖ γὰρ ὁ κύριος στηῖραι αὐτόν. (왜냐하면 주께서 그를 능히 세우시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 [그들의] 판단하는 바를 다툼으로까지 이끌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했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연합하지 못하는 분들을 의미한다.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자신의 행위에 기반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다름을 문제 삼아 다툼으로까지 끌고 가지 말라고 권면한다. 문화적으로 극명하게 다른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곳에 어울려 살던 로마 교회에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판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함으로 그 믿음의 겹을 메우려 하는 경향이 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들은 음식을 가려먹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합석해서 음식을 먹는 것조차 꺼렸다. 물론 이 이방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들인데도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보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던 사도 베드로도 이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함께 먹는 문제로 인해 소위 ‘기둥’같이 여기던 베드로를 직접 나무란 사건을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¹¹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¹²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¹³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¹⁴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갈 2:11-14).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자 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도 베드로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에 몹시 화가 났다. 그 누구보다 복음을 잘 아는 베드로가 아직도 유대주의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소속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았다는 점 때문이었

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라고 책망했다.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대주의를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거리낌없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내면에 있던 율법들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위선자로 변했다. 만약 누구와 무엇을 먹느냐는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다면 이방인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아무런 조건없이 백성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그러한 계율들은 이미 사문화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로 구원하실 리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민족이나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모든 율법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셨다. 그렇기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이 선언은 매우 놀랍고 혁명적인 것이었다.

“²⁶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²⁷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²⁸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6-28).

도대체 이 위대한 선언 앞에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엇을 먹고 먹지 않아야 하느냐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은 더 이상 땅의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지 말라는 뜻이다. 기독교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고치는 종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 생명으로 세상의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적극적 삶을 살도록 이 땅에 남겨졌다. 기독교는 자격없는 인간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종교다. 사람들을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선포하는 종교다.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 무엇을 하고 안 해야 한다는 규율을 지키는 정도의 소극적인 종교가 아니다. 타인을 향해 사랑을 베풀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아직도 먹는 문제가 신앙의 잣대가 되고 있고, 더 나아가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신앙의 수준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들이 자기 생각대로 정한 기준을 하나님이 그대로 적용하실 리도 없다. 아직도 먹고 마시는 문제, 흡연 문제 등을 신앙의 중요한 잣대로 삼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행위라라도 매워야 할 것 아니겠는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들을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된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어 그런 행위가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 그런 것으로 서로를 비판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지 않는 상태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런 것보다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데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믿음이 연약한 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나요?

거룩한 시간이 따로 있을까?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 14:5~6)

- ⁵ Ὅς μὲν [γάρ] κρίνει ἡμέραν παρ' ἡμέραν, (어떤 이는 한 날을 다른 날보다 낮게 판단한다)
ὅς δὲ κρίνει πᾶσαν ἡμέραν· (어떤 이는 모든 날을 동일하게 판단한다)
ἕκαστος ἐν τῷ ἰδίῳ νοῦ πληροφορεῖσθω. (각 사람은 각각의 마음 안에 온전히 확신하라)
- ⁶ ὁ φρονῶν τὴν ἡμέραν κυρίῳ φρονεῖ· (그날을 [중요한 날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날을] 주의 날로 여기며)
καὶ ὁ ἐσθίων κυρίῳ ἐσθίει, (먹는 사람들도 주를 위해 먹는다)
εὐχαριστεῖ γὰρ τῷ θεῷ·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καὶ ὁ μὴ ἐσθίων κυρίῳ οὐκ ἐσθίει (먹지 않는 사람들도 주를 위해 먹지 않는다)
καὶ εὐχαριστεῖ τῷ θεῷ. (그 역시 하나님께 감사한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어떤 것들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생각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다. 눈 앞에서 벌어지는 동일한 사건을 놓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하기도 한다. 사건을 판단하고 승인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다른 해석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 사회를 휘몰아친 촛불 시위는 급기야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초유의 결과를 초래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했으며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그 추운 겨울에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달려 나갔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한 변호사는 자신이 펴낸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 언론, 법조, 국민이 모두 법치주의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마구 치달려 나가는 것을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나라가 자칫하면 중국의 文化革命(문화혁명) 때와 같은 혼란의 10년을 겪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비록 소수이긴 했지만 그는 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이라고 명명된 그런 사유로 자리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이처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객관적 사실이나 진실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만든다. 또한 어떤 이들은 객관적 사실에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눈 앞에서 벌어지는 객관적 사실을 자신의 신념으로 왜곡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사실 다수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언제나 그것이 진실은 아니다. 또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사실 인간이 각기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전통이나 생각들을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무조건 답습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자신의 내면 깊숙한 데까지 들어와 신념 체계를 이룬다. 그리고 점차 굳어져 사건이나 사물 등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세계관이 돼 버린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형성된 각자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시간, 장소, 사물들을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어왔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그런 공동체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안식일은 그 어느 날보다 거룩한 날이었고 매년 돌아오는 절기는 매우 특별한 날이어서 그에 맞는 축제를 즐겼다. 또한 낮을 밤보다 더 신성하게 여겼고 하나님이 주신 유대 땅을 다른 어떤 곳보다 신성한 장소라 믿었으며, 팔레스틴 내에서도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를 가장 거룩한 곳으로 여겼다. 성전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일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정도로 ‘거룩한 곳들 중의 거룩한 곳’(Holy of Holies)이었다. 물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로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여겨 그들과 접촉하는 것조차 꺼려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분리된 자, 구별된 자들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더 거룩한 자들이라 생각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한테까지도 자신들이 믿는 바를 적용하고 강요하려 했다. 마가복음 7 장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할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자 그들이 예수님께 따지듯 물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막 7:5).

이들은 식사 전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도 따지고 들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지켜온 식사 예법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제자들은 법도를 어긴 불의한 자들이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으니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달랐다.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다.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지 음식이지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부정함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것이 사람들 더럽게 만든다는 것이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지키면 된다고 믿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하신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세계관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에서 태어나 그렇게 교육받으며 살아왔다. 그들에게 구별이란 생활이고 삶이었다. 그들은 구별됨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았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그런 삶이 바뀔 수가 없다. 그들은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다.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고 그 세계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조상의 유전을 중시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이들은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매일 매일을 동일하게 여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각자의 성장 배경과 세계관 또는 신념에 따라 각기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의 신념을 타인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 주장은 개인의 신념을 넘어서서 사회의 일반적인 율법이 되고 만다. 하지만 먹거리, 시간, 장소, 사람 등에 대해 우리가 성과 속을 나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성과 속은 오직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이 결정할 뿐이다. 사도 바울은 각자의 신념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지 않는다. 각자가 주를 위한다고 생각하며 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타인에게까지 강요하여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 신념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이고 정죄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술이나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를 어떻게 의롭고 정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음주와 흡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신앙의 옷으로 교묘하게 치장하여 하나님조차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이용하려는데 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데 있다. 상황에 상관없이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어떤 것을 성과 속으로 나누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각자의 생각이 옳음을 증명할 수 있나요? 서로의 디름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까요?

주를 위한 삶이란?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 14:7~8)

- ⁷ οὐδείς γὰρ ἑμῶν ἑαυτῷ ζῆι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καὶ οὐδείς ἑαυτῷ ἀποθνήσκει· (또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 죽지 않는다)
- ⁸ εἴν τε γὰρ ζῶμεν, (만약 우리가 산다면)
τῷ κυρίῳ ζῶμεν,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εἴν τε ἀποθνήσκωμεν,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τῷ κυρίῳ ἀποθνήσκωμεν.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다)
εἴν τε οὖν ζῶμεν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살고)
εἴν τε ἀποθνήσκωμεν,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τοῦ κυρίου ἐσμὲν. (우리는 주님께 속했다)
- ⁹ εἰς τοῦτο γὰρ Χριστὸς ἀπέθανεν καὶ ἔζησεν, (왜냐하면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ἵνα καὶ νεκρῶν καὶ ζώντων κυριεύσῃ. (그 결과 그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셨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자격이 율법책에 조목조목 적혀 있다면 그것만 하면 된다. 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루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호되게 외쳤다.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까지 아무도 기독교적 삶에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는 나머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요약하면,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의 전체적인 관점을 놓쳐버린다. 복음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신 선물이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으신다.” (필립 안시 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 (그루터기 하우스, 2013), p. 116).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는 은혜주의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하느냐에 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기록된 모든 조항들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께 인정 받으려 한다. 실제로 그들은 율법의 모든 요구 사항을 다 지켜냈다고 생각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율법을 문자대로 받아들인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어 자기들이 그 기준을 만족시켰다고 여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들의 의를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할까? 로마서 14 장 7 절과 8 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또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 죽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산다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살고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속했다”(롬 14:7~8).

바울의 이 진술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를 위해 산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율법주의자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에서 헌금을 하거나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는 이유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입증해 보이려는 것이 되면 오히려 그 열심이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하지만 그런 위험이 있다 하여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다. 따라서 누가 율법주의자고 누가 은혜주의자인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구별하기란 사실상 힘들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둘을 구별해 낼 수 있는가? 대부분의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삶을 타인들에게 강요하고 자신이 정한 기준에 미달되면 이내 정죄의 칼날을 들이댄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대단히 엄격하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겐 숨이 막힐 정도다. 또한 그들은 그런 행위로 타인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필립 안시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이유 없이 다른 바리새인들 주위에 지나칠 정도로 모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서로 경쟁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서로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들은 진짜 원수—사탄과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탄의 지배력—와의 접전을 상실했다”(필립 안시, 같은 책, p. 117).

물론 그들이 열심히 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당연히 주를 위해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게 살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다.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은혜를 중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주의자들과는 달리 타인의 입장에 서서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용서하려 한다. 또한 그들도 늘 절제된 삶을 살아가며 방종은 생각조차 못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자책하며 죄의식에 시달리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깨닫고 더더욱 은혜에 다가가게 된다. 역설적이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 그것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진정으로 주를 위하는 삶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켜내야겠다는 결심을 수반하지 않는다.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람에게 힘입어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향기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향기가 자연스레 풍겨 나오게 돼 있다. 그 향기는 그리스도가 내는 향기지 내게서 나오는 향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기한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다고 해서 우쭐해질 필요가 없다. 일찌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4:7).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특별히 나은 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거한다고 해서 질그릇이 고려청자처럼 고귀한 그릇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질그릇은 언제나 질그릇일 뿐이다. 다만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다를 뿐이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일 뿐인데 그 내면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깨달은 자들은 절대로 율법주의자가 될 수 없다. 늘 은혜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한 삶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주를 위한 삶이란?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 14:9)

⁹ εἰς τοῦτο γὰρ Χριστὸς ἀπέθανεν καὶ ἔζησεν, (왜냐하면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ἵνα καὶ νεκρῶν καὶ ζώντων κυριεύσῃ. (그 결과 그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셨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다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문제를 언급한다. 또 다시 복음이다. 바울은 앞서 로마서 4 장 25 절에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라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연합됨으로 이미 죽은 자다. 그렇기에 우리의 욕망도 이미 죽은 욕망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해도 그것 또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복음’을 다시 환기시킨 이유는 그 복음 안에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서 두 번에 걸쳐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음을 선언했다. 죽어야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죽음은 필수다. 그리스도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완성해내려는 욕망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이르려는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더 이상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를 만들어 낼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결코 죽음은 없다. 죽음을 통과해야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데 말이다. 그리고 바울의 설명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스스로 채점을 하면서 뿌듯해 하고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욕망은 선한 것이기에 자신이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의에 이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의 뿌리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지적하셨다.

“²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³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⁵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하나니 곧 그 치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⁶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⁷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마 23:2-7).

그들은 율법에 금한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자신들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다.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일은 물론이고 온갖 규례를 만들어 안식을 지키고자 했다. 그들은 정결하지 않은 것들은 아예 먹지도 만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가난하거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여겨 그들을 죄인으로 여겼다. 강도를 만나 거만 죽은 사람도 살려 내야 할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접촉하지 말아야 할 가엾고 부정한 존재로 생각했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만의 기준을 세워 그것만이 진리인양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강요했다. 그들은 백성들이 율법을 잘 준수하는지 매의 눈을 가지고 감시했다. 예수님이 38년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을 때 누구보다 먼저 축하를 해주고 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판인데 그들은 그 병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었다. 또한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걸 빌미로 예수님께 따지기도 했다. 율법이 그들을 굴복시켜 죽음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율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의를 인정받기에 바빴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얼마나 옳은 삶을 살고 있는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 대접 받고 싶어했다. 율법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한계를 느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그들은 자기 힘으로 능히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고 착각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더 나아가 이는 신성모독에 해당된다고 여겼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었다고 선언한다. 이는 복음에 동참한 자들, 복음을 받아들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주가 되었다는 말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죽음에 비견되는 일이며 그분은 성도의 구원을 위해 친히 십자가까지 지셨다. 낮아짐 없이 높아짐은 없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⁶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⁷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⁹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¹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¹¹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5-11).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를 주로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섬기는 이유는 우리와 연합되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를 주로 부를 수 없다. 그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새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다시 말해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우리는 그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은 행실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해서만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율법에 매여 그것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려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또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를 감히 주라 부를 수도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를 수 있고, 그가 우리의 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그분이 주시는 의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그래도 찝찝한 구석이 있어 아직도 율법의 조문을 읊조리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타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주의 주됨을 부인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을 주라고 부르며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보여주시는 사랑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우리에게 타인을 판단할 권한이 있을까?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 14:10~12)

- ¹⁰ Σὺ δὲ τί κρίνεις τὸν ἀδελφόν σου; (당신은 왜 당신의 형제들을 판단하느냐?)
ἢ καὶ σὺ τί ἐξουθενεῖς τὸν ἀδελφόν σου; (당신은 왜 당신의 형제들을 업신여기느냐?)
πάντες γὰρ παραστησόμεθα τῷ βήματι τοῦ θεοῦ,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설 것이다)
- ¹¹ γέγραπται γάρ·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왔다)
ζῶ ἐγώ, λέγει κύριος, (나는 살아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ὅτι ἐμοὶ κάμψει πᾶν γόνυ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다)
καὶ πᾶσα γλῶσσα ἐξομολογήσεται τῷ θεῷ.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이다)
- ¹² ἄρα [οὖν] ἕκαστος ἡμῶν περὶ ἑαυτοῦ λόγον δώσει [τῷ θεῷ].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지금까지 14 장에서 주장해온 내용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간다. 10 절~12 절은 14 장 1 절부터 이어온 내용을 중간 정리하는 부분이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각각 배경이나 세계관이 달라도 한 형제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형제를 판단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점이다.

먼저, 우리는 한 형제다. 한 형제라는 말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형제됨에 대해 이렇게 진술한다.

“⁴⁰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¹¹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¹²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¹³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불찌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¹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¹⁵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히 2:10-15).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바울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불렀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속했다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통하지 않고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없다. 아마도 스스로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서 거룩함에 이르렀다고 뿌듯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건 아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보장은 없다.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든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세상에서 천대받은 거지 나사로든, 거지요 맹인인 바디메오든, 바리새인에게 멸시를 당하는 세리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수치심에 얼굴조차 들지 못한 여인이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 하나님은

자격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결과 사망에 매여 일생을 종노릇 하던 데서 풀려난 사람들이다.

이처럼 성도의 형제됨은 그가 가진 신념과는 무관하다.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특별히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든 아니든 그것이 형제됨의 조건이 아니다. 이런 것은 단지 개인적 신념의 문제일 뿐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도 아니요 이를 유지하는 조건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성도는 각각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상대방을 향해 자신과 같아지라고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성도에게 부여한 바가 없다. 먹는 문제로 고심하며 아직도 자기 앞에 놓인 고기가 제삿상에 올려졌던 것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 없음에 대해 비판을 한다. 먹지 않는 자들은 부정확한 음식을 아무런 고민도 없이 먹는 그들의 불경건한 행동을 비난하기도 한다. 바울은 그런 행동을 중지하라고 권면한다.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산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찌할 것인가? 사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아니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인간에게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게 더 정확하다. 형제를 판단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신념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다. 인간의 관습을 무조건 고치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또는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느냐? 이런 것은 인간들끼리의 문제일 뿐이다. 고난을 당한 중에 찾아온 친구들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욕과 그에게 죄가 있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친구들 간의 논쟁에 끼여든 엘리후가 욕과 그의 친구들에게 한 말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⁷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⁸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욥 35:6-8).

인간이 수많은 죄를 지은들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는가?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만 어지럽게 만들고 사람들만 괴롭게 할 뿐이다. 인간들이 죄악을 저지른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다. 죄를 지은 인간만 비난받을 뿐이다. 반대로 인간이 의를 행한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칭찬이 필요한 분이 아니며 거룩하게 되기 위해 인간의 수고가 필요하지도 않다. 인간이 의롭게 살면 인간 세상에 유익할 뿐이다. 그렇기에 먹는 문제를 갖고 서로 비난하거나 또는 날을 갖고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인간들끼리 하는 이런 가열찬 논쟁에 하나님이 끼어들어 어느 한쪽 편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다. 그가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서로를 용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

묵상을 위한 질문

우리는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서로 정죄하지 말라!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 14:13~14)

- ¹³ Μηκέτι οὖν ἀλλήλους κρίνωμεν·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 판단하지 말자)
ἀλλὰ τοῦτο κρίνατε μᾶλλον, (오히려 이것을 판단하라)
τὸ μὴ πθέσθαι πρόσκομμα τῷ ἀδελφῷ ἢ σκάνδαλον.
(형제들 앞에 그를 부딪칠 것이나 넘어지도록 하는 것을 놓지 말라)
- ¹⁴ οἶδα καὶ πέπεισμαι ἐν κυρίῳ Ἰησοῦ (나는 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득당했다)
ὅτι οὐδὲν κοινὸν δι' ἑαυτοῦ, (어떤 것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
εἰ μὴ τῷ λογιζομένῳ τι κοινὸν εἶναι, ([만약]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ἐκείνῳ κοινόν. (그 사람에게 [그것은] 부정하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다. 그것으로 인간들이 짊어진 모든 부담이 어깨에서 내려졌다. 그런데도 아직도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 사람의 믿음 없음 때문이다. 참고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전인격적 동의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위를 내려 놓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다. 믿음이 없으면 그만큼 짐은 무거워진다. 사실 믿음이 있고 없고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안식일만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된다. 음식 문제가 여전히 마음에 걸리면 음식을 가려 먹으면 될 일이다. 다만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 것은 믿음보다는 일종의 개인적 신념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다.

바울은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만약 구원이 개개인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앞서 한 모든 말들은 다 헛된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정해주신 계율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지침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해야 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돼지고기와 같은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 것이며, 어쩌다 죄를 지으면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또한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나마도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니 결국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인간의 구원 여부를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 한 개인의 삶에 타인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는 문제다. 타인의 행위를 보고 그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능력이 인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신들의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초대 교회에도 많았던 게 분명하다.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 편지를 썼는데 대부분의 편지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일인지를 역설하고 있다. 그 중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 율법에 정한 것들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¹⁶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¹⁷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¹⁸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고 ¹⁹ 머리를 붙들

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²⁰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²¹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²² (이 모든 것은 쓰는데로 부패에 돌아 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²³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골 2:16-23).

안식일이나 절기나 음식 문제를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만 된다. 전통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구원얻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매달리는 사람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아직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 교회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헌금을 가져 가야만 되는 사람도 있고,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찻찻한 사람들도 있다. 물론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신앙관을 갖고 한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로마 교회에는 아예 삶의 뿌리가 완전히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 생활을 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신념으로 말이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 죄인들이 구원 받은 후에 어떠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저 죄인임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할 뿐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한다. 과거의 습관들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다시 생겨나는 것이 인간사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는 형국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용서와 사랑보다는 정죄와 증오가 더 눈에 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를 오늘날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게다가 정죄의 기준도 제각각이다. 어떤 이들은 이혼 문제엔 관대하면서도 동성애 문제엔 가차없이 정죄의 칼날을 들이댄다. 또 어떤 이들은 성문제에 있어서도 남녀 간에 다른 기준을 들이대기도 한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조차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도 늘 증오의 대상은 있어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들에게 타인을 정죄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타인을 정죄하고 도망갈 곳 없는 구석으로 몰아간다면, 그래서 교회조차 피난처가 아니라 오히려 모욕을 주는 곳으로 만든다면 우리들은 이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심판자이지 더 이상 용서 받은 죄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각자가 어떤 특징인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 그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그리고 스스로의 신념과 기준으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정죄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가 없습니까? 반대로 누군가에게 판단 받거나 정죄당한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